

『세종실록』의 우산무릉

- 풍설의 요도 -

권 오 엽*

권 혁 성**

(e-mail : dongsana@hanmail.net · yunafiaa77@gmail.net)

< 목 차 >

- | | |
|---------------------|----------------|
| 1. 서론 | 4. 정동해중의 통치 |
| 2. 세종의 정동해중 | 4.1. 세종의 왜출 정책 |
| 2.1. 『세종실록』의 제 도명 | 4.2. 울릉도와 무릉도 |
| 2.2. 『신찬팔도지리지』 정동해중 | 4.3. 안무사와 경차관 |
| 3. 풍설의 요도 | 5. 결론 |

キーワード : 于山島 (Wusando island)、武陵島 (Mureungdo island)、高麗史地理志 (Geography of Goryeo history)、世宗實錄地理志 (Geography of King Sejong)、新撰八道地理志 (Geography-the eight provinces of Korea)

1. 서론

세종대왕은 『고려사』의 편찬 방법과 내용을 사관들과 논쟁할 정도로 역사의 기록에 관심이 많았다. 59년만에 『고려사』가 편찬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태조와 정조의 실록을 개수시켰고 태종의 실록을 명하기도 했다. 또 『신찬팔도지리지』를 편찬하여 『세종실록지리지』의 모본으로 삼게 했다.

그런 세종이었기에 『고려사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가 같이 전하는 「정동해중의 우산과 무릉은 풍일청명한 날에만 망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려사』가 1451년, 『세종실록』이 1454년에 편찬되어 3년의 차가 나고, 『세종실록지리지』가 1432의 「신찬팔도지리지」를

*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일본고전문학

** 순천대학교, 강사, 일본고전문학

모본으로 했기 때문에, 『고려사지리지』의 「일운」을 『신찬팔도지리지』의 전용으로 보기도 한다.

세종의 우산도 인식은 태종이 「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했던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한 것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정동해중에 우산도와 무릉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제수할 수 있는 관직이었다. 세종은 정동해중에 1429년에 양도 이외에도 요도가 존재한다는 풍설을 접하자 실체를 확인하려 9년이나 노력하고도 뜻을 이루지 못하자 1438년에 「무릉도순심경차관」을 신설하고 조민과 남회를 심경차관에 제수한다. 안무사의 관리영역 「무릉등처」를 「우산무릉등처」로 구체화 했던 세종이 「우산」을 생략한 관직을 신설한 것이다.

세종은 1430년에 강원도의 북방, 함길도의 남방에 요도가 존재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정보를 강원도와 함길도에 제공하며 실체를 확인한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1438년 7월에도 강원도 감사에게 같은 내용의 명을 내린다. 육안으로 확인된다는 요도를 9년이 지나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세종은 성의를 다하면 구해지는 것이 천하고금의 상사이므로, 강역 안의 영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로자에게는 신분을 초월하는 벼슬을 하사하고 포상하겠다는 뜻까지 천명했다. 것처럼 풍설의 섬까지 실체를 확인하려는 세종이 존재가 확인되는 우산도의 통치를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태종과 세종은 무릉도의 주민을 쇄출하려 했으나 완전한 쇄출은 불가능했다. 쇄출된 주민들이 기회가 되면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런 무릉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동해중의 정확한 지리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리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야 했다. 조정이 파견하는 관리라 해도 자신들의 정보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왜곡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방법의 하나로 요도의 풍설을 유포시켰을 수도 있다. 세종이 16년이나 노력하고도 요도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릉등처안무사」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개명하여 정동해중을 관리시키던 세종이 「우산」을 삭제한 「무릉도순심경차관」을 신설하고 조민과 남회를 경차관에 제수하여 무릉도 주민들을 쇄출시킨 것도 무릉도 부근에 존재한다는 요도의 확인을 위한 조치로 보여 진다.

이상과 같이 요도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세종이 노력했음에도, 그 과정과 그것으로 인해 확인된 조선초기의 정동해중2도 인식에 대해 다룬 연구는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종이 확인하고자 했던 요도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에는 이미 정동해중에 우산도의 존재를 인식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세종의 정동해중

2.1. 『세종실록』의 제도명

『세종실록』에 기록된 정동해중의 도명은 「무릉」, 「무릉도」, 「요도」, 「무릉도우산」, 「우산무릉」, 「본도」, 「차도」, 「기도」 등이다. 이것들이 존재하는 해역을 관리하는 관직이 「우산무릉등처안무사」와 「무릉도순심경차관」이었고, 그 일에 관여하는 것이 강원도와 함길도의 감사들이었다.

무릉은 세종1·7·8·27년조 등에 보이는데,¹⁾ 무릉도와 같은 문장 안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무릉도에서 「도」가 생략된 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릉도는 1·7·19·20·21·23년조 등에 등장하는데,²⁾ 한자의 표기가 武陵島(1·7·23)와 茂陵島(7·19·20·21)가 혼용되지만 무릉과 동도를 의미한다.

7년조의 「우산무릉」은 세종이 정동해중의 관리를 목적으로 임명하는 「우산무릉등처안무사」라는 관직명에 포함된 조어로³⁾, 안무사가 관리하는 영역에 우산도와 무릉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우산도와 무릉도의 병기라는 것은 『고려사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가 우산 무릉을 2도라고 말한 것으로 알 수 있다. 1438년에 신설한 「무릉도순심경차관」에서 「우산」을 제외한 것을 보아도 「우산무릉」은 1도가 아니라 2도이다.

「본도」는 7년의 8·10·12월조와 12년의 1·4월조에 있는데,⁴⁾ 7년의 8월

-
- 1) 武陵出來男婦(1년),茂陵入歸時,敗船物故(7년),逃往茂陵(8년),其後因往茂陵,亦望此島(27년)
 - 2) 奴元端等謀潛居武陵島,武陵島出來人等(1년),逃居武陵島(7년),武陵島搜訪之時(23년).麟雨領兵船二艘,入茂陵島(7년),茂陵島無人日久(19년),敏回自茂陵島復命(20년),擅入茂陵島(21년)
 - 3) 以前判長鬻泉事金麟雨為于山,武陵等處按撫使...于山,茂陵等處按撫使金麟雨搜捕本島避役男婦二十人來復命(7년)
 - 4) 復逃入本島,今年五月,乙之等七人留其妻子於本島(7년8월),金麟雨搜捕本島避役男婦二十人來復命,隨按撫使金麟雨向本島(7년12월),金南連曾往還本島(12년1월),詳問本道形勢遠近以啓(12년4월)

조와 10월조는 강원도 평해인들이 도망쳐 거주하는 무릉도이고, 12월조는 김인우가 무릉도 주민을 쇄출하기 위해 향했던 섬이다. 12년 1월조는 함흥부의 주민 김남련이 건너간 일이 있다는 요도이고, 12년 4월조는 함길도의 수령관 김남련과 같이 가보았다는 요도를 의미한다.

「차도」는 7·19·27년조에 있는데,⁵⁾ 7년조는 본토인들이 요역을 피해 들어간 무릉도이고, 19년조는 본토에서 멀고 향로가 험하다는 무릉도다. 27년조는 세종이 추정한 요도다. 「기도」는 20·27년조에 보이는데,⁶⁾ 20년조는 경차관이 설명하는 무릉도이고, 27년조는 세종이 언급한 요도다.

「무릉도우산」은 세종 18년 윤6월조의 보이는데,⁷⁾ 이곳의 「우산」을 우산도의 약기로 보면 무릉도와 우산도의 병기로 볼 수도 있고, 무릉도의 우산으로 볼 수도 있다. 강원도 감사 유계문이 세종에게 무릉도에 주민을 이주시키고 관리를 주재시키자고 건의하는 가운데 사용된 조어인데, 세종이 답하는 전지에 「무릉도」로 기록한 것을 보면 「무릉도우산」은 무릉도와 우산도의 병기라기보다는 「무릉도의 우산」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면 우산은 『고려사지리지』의 「대산」, 『세종실록지리지』의 「태산」에 해당하여,⁸⁾ 유계문이 말한 비옥한 토지는 무릉도 중앙에 솟은 산자락의 평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울릉도 성인봉의 자락에는 90헥터에 이르는 「나리평야」가 있다.⁹⁾

「우산무릉등처안무사」는 우산도와 무릉도를 둘러싼 해역을 관리하지만, 태종과 세종이 임명한 안무사의 활동이 주민의 쇄출이 주된 임무였기 때문에, 주민이 없는 암도로서의 우산도에 관한 기록은 없다. 그렇다 해서 안무사의 관리영역이 무릉도로 한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안무사」의 접두어 「무릉등처」가 「우산무릉등처」로 구체화된 것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2.2. 『신찬팔도지리지』의 정동해중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가 1432년에 편찬된 「신찬팔도지리지」

5) 此島別無異産,所以逃入者(7년),予謂此島,海中必有之,然島山平微,海浪連天,在岸者未得詳見. 予之尋訪此島(27년)

6) 其島四面皆石,雜木與竹成林,西面一處,可泊舟楫(20년),其中豈無親見其島者哉(27년)

7) 江原道監司柳季聞啓.武陵島牛山,土沃多産,東西南北各五十余里,沿海四面,石壁周回,又有可泊船隻之處(18년)

8) 柔立回奏云島中有大山(『高麗史地理志』), 審察使金柔立等回來告島中有太山(『世宗實錄地理志』)

9) 울릉군(2007) 『鬱陵郡誌』 울릉군지편찬위원회, p.56.

를 모본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도 먼저 정리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1424년에 『신찬팔도지리지』의 편찬을 명받은 변계량 맹사성 등이 월령문의 편찬을 주장했으나 세종은 지지와 주군의 연혁이 먼저라는 지침을 내렸다.¹⁰⁾ 지리지 편찬에 세종의 관심이 지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시였다. 『신찬팔도지리지』가 현존하지 않으나 경상도가 기초자료로 올린 『신찬경상도지리지』나 『세종실록지리지』를 통해 어느 정도의 내용과 체제는 살필 수 있다.¹¹⁾

『신찬팔도지리지』를 편찬한 1432년(세종14)은 세종이 김인우를 「우산무릉 등처안무사」로 임명하여 무릉도 주민 20인을 쇄출한 1425년보다 7년 후이고, 정동해중에 요도가 존재한다는 풍설을 접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시작한 1430년보다 2년 후였다. 또 6년 후인 1438년에는 「무릉도순심경차관」을 신설하여 요도의 실체를 확인하려 했다. 그런데도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1441년에는 새로운 땅을 확인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야 한다며, 요도를 확인하는데 공을 세운 자에게는 신분을 초월하는 벼슬을 내리고 포상하겠다는 의지까지 천명했다.

그런 세종이 정동해중에 우산도와 무릉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세종이 편찬과정에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정동해중의 지리적 사실을 『세종실록지리지』는

2a. 우산과 무릉 2섬이 현의 정동해중에 있다. 2도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않아 풍일 청명하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¹²⁾

강원도의 정동해중에 존재하는 우산도와 무릉도는, 풍일청명한 날에는 서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다음에 신라가 우산국으로도 불리는 울릉도의 지리적 사실, 고려의 태조에게 우릉도의 사자에게 벼슬을 내린 사실 등을 약기했다.¹³⁾ 그것을 『고려사지리지』는

10) 季良啓曰,地志及州郡沿革,一体事也,使兼春秋館一人掌之.臣与卓愼,尹淮共議撰之,月令之文,臣当任之.上曰,月令之文,姑徐之,地志及州郡沿革,卿今撰進(『世宗實錄』 세종6년 11월15일)

11) 徐仁源(2002) 『朝鮮初期 地理志 研究』 혜안, p.49.

12) 于山·武陵二島, 在嶺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世宗實錄地理志』 江原道 蔚珍縣條).

13) 江原道 三陟都護府蔚珍縣, 于山, 武陵二島在嶺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鬱陵島. 地方百里, 恃險不服, 智証王十二年, 異斯夫為何瑟羅州軍主謂于山人愚悍, 難以威來, 可以計服, 乃多以木造猛獸, 分載戰艦抵其國, 誑之曰: 汝若不服, 則即放此獸. 國人懼來降. 高麗太祖十三年, 其島人使白吉土豆獻方物. 毅宗十三年, 審察使金柔立等回來告: 島中有泰山, 從山頂向東行至海一万余步, 向西行一万三千余步, 向南行一万五千余步, 向北行八千余步,

2b. 일설에는 우산과 무릉이 본래 2도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않아 풍일 청명 하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¹⁴⁾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을 전한다. 그것을 가와카미 겐조는 『세종실록지』가 『고려사지리지』의 울릉도에 관한 주기를 거의 답습한 것이라 했는데 『고려사지리지』의 「일운」을 문두의 울릉도에 접속시켜, 무릉도와 우산도의 관계가 아니라 본토와 울릉도의 관계를 설명한 내용이라 했다. 그리고 「우산무릉」을 2도로 보는 것은 관념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했다.¹⁵⁾ 안용복이 일본인들에게 납치 당한 숙종 19년(1693)까지 조선이 우산도(독도)를 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목적의 의견이었다.

그런데 태종이 김인우에게 채수한 「무릉등처안무사」는 김인우에게 무릉도 이외에 존재하는 섬을 조사하라는 지시였기 때문에, 1416년 9월 2일에 파견된 김인우는 무릉도 이외의 섬이 존재하는가를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2c. 그 결과 무릉(도)로부터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는 섬 독도를 조사하여 우산(도)라는 이름을 붙여 보고한 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중앙정부는 1432년에 완성한 『신찬팔도지리지』에 동해 가운데의 조선 영토로 무릉(도)와 우산(도)가 있음을 서술하여 국가의 공식 견해로 삼았고, 그것이 1454년에 완성된 『세종실록』 지리지에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¹⁶⁾

태종이 임명한 김인우가 「무릉등처」를 우산 무릉으로 구체화하고 『신찬팔도지리지』가 국가의 공식 견해로 삼아 수록한 것을 『세종실록지리지』가 모본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안무사 김인우의 활동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리하여 명쾌한 주장이다. 그러나, 『고려사』 지리지는 울릉도만 서술한 고려시대의 기록을 중심으로 앞쪽에 기록하고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도)와 무

有村落基址七所。或有石佛像鐵鍾石塔。多生柴胡蒿本石南草。我太祖時，聞流民逃入其島者甚多，再命三陟人金麟雨，為按撫使，刷出空其地。麟雨言：土地沃饒，竹大如柱。鼠大如猫，桃核大於升。他物稱是(世宗實錄地理志)

14) 一云，于山·武陵，本二島，相距不遠，風日清明，則可望見(『高麗史』地理志，蔚珍縣)

15) 川上健三『竹島の歴史地理的研究』古今書院，p.99~104. 權五晔(2010)『日本の 獨島論理』백산자료원，p.111~127.

16) 이기봉『우산도는 왜 독도인가』12頁，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 이기봉님이 논자의 질문에 응하여 출판대기중의 원고를 2018년 6월 4일에 메일로 전송해주셨다.

릉(도) 두 섬 기록을 뒤쪽에 일설로 덧붙여 준 것이다」¹⁷⁾라는 주장은 따르기 어렵다. 「일운」이 『세종실록지리지』, 즉 『신찬팔도지리지』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 했는데, 그것이 고려 이전의 정동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인정하지 않는 의견이기 때문이다.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명에 따라 37권의 『고려국사』가 편찬된 것이 1395년의 일이었다. 그것이 여러 차례의 개찬을 거쳐 1451년(문종원)에 총 139권의 『고려사』로 완성되었는데, 그렇게 5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은 서술체제의 문제나 조선왕조 정통성에 대한 왕실과 신료들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즉 왕권과 신권이 대립했기 때문인데,¹⁸⁾ 그런 문제에서 「지리지」는 「세가」나 「열전」과 달리 자유스러워, 정동해중의 지리적 사실은 『고려국사』가 편찬되었을 때 이미 정리되어, 개편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것이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사』는 고려가 남긴 사료에 근거해서 편찬된 사서다. 편찬에 관여한 사관들은 고려의 사료에 근거해서 고려의 역사와 인식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후대의 사실과 가치관을 전대의 사서에 인용한다면 그것은 사관의 자세가 아니다.

『고려사지리지』가 우산과 무릉의 관계를 「일운」으로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당대에 제설이 유포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설은 「일도」를 불리는 울릉도에 주민이 거주하던 3세기에도 존재했을 것이다. 일도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동방의 암도는 주민들에게 회자되지 않을 수 없었다. 6세기의 신라인들은 일도를 울릉도와 우산국으로 병기 했듯이, 울릉도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울릉도와 우산국 등으로 부르고 있었다. 그런 울릉도 주민들이라면 육안으로 확인되는 동방의 암도를 명명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다양하게 호칭하는 경우가 상정된다. 그런 사회적 인식이 다양하게 전승되다가 그 중의 하나가 「일운」으로 채택된 것이다.

또 울릉도를 대리하는 무릉도라는 기록이 『고려사』에 없는 것도 아니다. 「열전」의 신우 5년(1379)조에 무릉도라는 도명이 있다.¹⁹⁾ 왜인들이 나타나는 섬을 울릉도로 기록하던 것과 달리 무릉도로 기록했는데, 그것은 당시의 사회

17) 진계주13, p.21.

18) 徐仁源(2002) 『朝鮮初期 地理志 研究』 혜안, p.29.

19) 七月倭寇樂安郡(중략)倭入武陵島留半月而去(중략)八月倭寇余美峯(『高麗史』 列伝, 辛禩5년7월)

가 울릉도를 무릉도로 칭했다는 것인데, 그 이전의 고려는 우산국, 우릉도(芋陵島, 芋陵島), 울릉도(鬱陵島, 蔚陵島), 우릉성(羽陵城) 등을 혼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고려가 1379년에 울릉도를 무릉도로 기록했고, 이후의 조선은 울릉도를 무릉도(武陵島, 茂陵島)로 대체하는데, 태종 때에는 「무릉등처」를 「우산무릉등처」로 구체화했고, 우산도와 무릉도를 의미하는 「우산무릉」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그런 표기는 무릉(도)와 우산(도)가 쌍으로 호칭되고 기록되는 것이 관용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신우조에 무릉도라는 표기가 있다는 것은 당시에 무릉도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암도의 도명, 무릉도와 쌍으로 호칭되는 우산도라는 도명도 유포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도 『고려사』에 우산(도)라는 표기가 없는 것은 그런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자료가 사관들에게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세기의 옥저는 정동해중의 지리적 사실을 「1도」로 기록했는데 『삼국사기』는 울릉도와 우산국으로 병기하여, 6세기의 울릉도 주민들의 호칭이 다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된 이후로 우산도, 우릉도, 울릉도, 무릉도, 무릉, 우산, 우산무릉, 유산국도 등과 혼용된 것은 국가로서의 독자성을 상실한 결과였다. 그렇다 해서 우산국과 울릉도가 동질의 호칭일 수는 없다. 울릉도가 우산국을 상징하거나 대표할 수는 있어도 우산국일 수는 없다.

울릉도의 도명이 다양했다는 것은,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암도에도 호칭도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울릉도를 다양하게 호칭하는 주민들이 망견되는 암도를 명명하지 않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최남선이 언급한 「일운」의 의미는 설득력을 가진다.

2d. 鬱陵島의 本名이던 于山이 여기서는 本島 以外인 一屬嶼의 名으로 別用되어 있고, 于山이라는 것은 아마 本島 東北 海上의, 近日 소위 竹島란 것을 가리킨 것처럼 볼 듯하게 되었다.²⁰⁾

우산국의 우산을 울릉도의 본명으로 보고 『고려사지리지』 「일운」의 우산을 울릉도 동방의 우산도로 보았다. 정동해중에 울릉도 이외의 섬이 존재한다는 것은 신라가 정벌의 대상을 울릉도가 아닌 우산국으로 호칭한 사실로도 알 수 있는 일이다.²¹⁾

20) 崔南善(1973) 「鬱陵島와 獨島」 『六堂崔南善全集2』 玄岩社, p.680. 『서울신문』 1953년.

21) 于山國在冥州正東海島或名鬱陵島(중략)乃多造木偶獅子分載戰船抵其國海岸(『三國史記』

마립간으로 즉위한 지증은 국호를 「신라」로, 군주호를 「국왕」으로 개칭하고, 스스로 「신라국왕」을 칭할 정도로 「국」의 의미에 민감했다. 그런 지증왕이 울릉도가 아닌 우산국을 정벌하라는 것은, 정벌의 대상을 울릉도만이 아니라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암도를 포함한 영역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산국을 울릉도만이 아니라 울릉도 동방에 존재하는 암도까지 포함하는 나라로 보았다는 것이다. 신라라는 국호가 사방을 망라한다는 「라」를 취한 것을 보아도 지증왕이 말한 우산국은 울릉도와 그 주변의 섬들을 망라한 공간을 영역으로 하는 나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우산국의 영역에서 동방의 암도를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²²⁾

『고려사』의 편찬에 임한 사관들은 그런 사회적 인식을 기록한 자료들을 확인하고, 그 중의 하나를 「일운」으로 기록한 것이다. 『신찬팔도지리지』가 그런 고려의 인식을 「일운」으로 소개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을 모본으로 하는 『세종실록지리지』는 「일운」이 아닌 「정설」로 취했다. 따라서 『고려사지리지』의 「일운」은 『신찬팔도지리지』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고려인들의 전통적인 인식을 기록한 자료들이 전하는 다양한 도명 중의 하나를 소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풍설의 요도

세종이 1429년(세종 11) 12월에 요도를 방문시킨 봉상시윤 이안경이 1430년(세종 12) 1월에 돌아오자, 함흥부의 주민 김남련이 요도에 다녀왔다는 정보까지 함길도 감사에게 제공했다. 그리고 4월이 되자 김남련을 다시 파견하거나 노쇄했거든 그가 아는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²³⁾

그리고 같은 4월에 홍사석과 신인손을 강원도와 함길도에 에파견하여 요도를 찾아보게 했다.²⁴⁾ 이후에도 요도가 양양부의 청대 위나 통천현의 당산에서 바라보

智証王13년조)

22) 權五曄(2017) 「국가로서의 우산국」 『중등교육연구』 제29집, 경상대학교교육연구원, p.7.

23) 遣奉常寺尹李安敬于江原道, 訪問蓼島(세종11년12월 27일). 蓼島而還. 伝旨威吉道監司, 前此往見蓼島之人及素見聞本島之狀者, 悉訪之. 威興府蒲靑社住金南連曾往還本島, 其給伝以送. 若老病則詳問本島形狀及人居殘盛衣服言語飲食之類以啓(세종12년1월26일). 遣上護軍洪師錫于江原道, 尋訪蓼島(세종12년4월4일).

24) 遣上護軍洪師錫于江原道, 尋訪蓼島(세종12년4월4일). 遣典農尹辛引孫于威吉道, 尋訪蓼島(동6일)

면 북방에 있고, 길주의 무시곳이나 홍원현의 포청사에서 바라보면 남방에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며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자 함길도 감사는 전벽등 4닝능 무시곳에 보내 측량하게 하고, 전벽을 서울로 보내 보고하게 했는데, 그것은 세 봉우리 중 가운데 봉우리가 높은 섬으로 함길도의 남방에 위치하는 섬이었다.²⁵⁾ 그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무릉도나,²⁶⁾ 『숙종실록』의 울릉도를 연상시켜,²⁷⁾ 무릉도가 요도로 풍설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어쨌던 요도는 강원도 양양부의 청대나 통천현 당산의 북방, 함길도 길주의 무시곳이나 홍원현 포청사의 남방에 존재하는 섬이었다. 그리고 이안경과 김남련이 다녀온 섬이었고, 세종이 강원도와 함길도 감사에게 탐문시켜 함길도의 남방, 강원도의 북방에 요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정리한 섬이었다. 결국 정동해중에 무릉도와 우산도 외에 요도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세종은 1438년에 다시 양양의 동방에 있다는 요도를 탐문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강원도 감사에게 내린다.²⁸⁾ 그때까지 요도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리고도 확인하지 못했는지, 1441년에 요도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또 내린다.²⁹⁾

세종은 그것을 성의가 부족한 결과로 판단하고, 한무제와 당태종이 성의를 다하여 원하는 것을 구한 고사를 상기시키며 성심을 다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천하의 상사라 했다. 그리고 강역 안에 있다는 요도는 성심을 다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요도 확인에 공을 세운 자에게는 신분을 초월하는 벼슬을 내리고 포상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³⁰⁾

그리고도 4년이 지난 1445년 6월에, 세종은 강원도 감사에게 양양부 동방 100여 리에 요도가 있다는 정보를 또 제공하며 실체의 확인을 지시했다.³¹⁾ 1430년에 지

25) 今所訪蓼島,在襄陽府青台上,通川縣堂山登望,則見于子丑間.在吉州無時串,洪原縣蒲青社望見,則見于巳午間.其令詳明動恪人望見以聞.至是,咸吉道監司報.令殿直田關等四人,往無時串登望海中,有東西二峯如島嶼,一微高,一差小,中有一大峯.立標測之,正當巳午間.遂送關於京(세종12년 10월23일).

26) 于山島鬱陵島一云武陵一云羽陵二島在東海中三峰岌業空南峰稍卑(『新增東國輿地勝覽』卷454,蔚珍縣條)

27) 承旨金龜萬,侍講筵,白上曰,臣昔為江原都事,至海上,問居人以鬱陵島,則為指示之,臣早起遙望,三峰歷歷(『肅宗實錄』숙종20년2월23일)

28) 予以衰老之年,敢望尋覓.但本島,諺稱在襄陽之東,不可不知其在何處也,卿宜更加訪問以達(『世宗實錄』세종20년7월26일)

29) 境內古老人及事知各人等處,或懸賞以問之,或開說以訊之,多方計畫,廣行咨訪以聞(『世宗實錄』세종23년7월14일)

30) 況此新地,在吾域中,尤不可不知,求之以誠,必有得之之理也.卿其知悉,境內古老人及事知各人等處,或懸賞以問之,或開說以訊之,多方計畫,廣行咨訪以聞(세종23년7월14일)

시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지시였다. 그러자 2개월이 지난 1445년 8월에 권맹손이 삼척부의 해중에 있는 요도를 보았다는 남회를 파견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천했고, 세종은 남화가 상중임에도 특별히 기복을 명하여 의관과 신발까지 하사한 다음에 파견했다.

남회라면 1438년에 「무릉도순심경차관」을 제수 받아 무릉도 주민을 쇄출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함길도와 강원도에서 망견할 수 있다는 요도를 확인했을 만한데 그러지 않았던 모양이다. 남회는 스스로 동산현에 올라 바다가운데 있는 산을 보았다는 말까지 했다³²⁾. 그렇기 때문에 무릉도로 가는 도중에 존재한다는 요도를 확인하는 일에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남회는 요도를 찾지 못했고, 세종은 탄망 당했다고 탄식한다.³³⁾ 그 이후로 요도를 찾는 일이 없게 된다.

세종은 동북방면에 6진을 설치하여 조선의 북계를 두만강 압록강 연안까지 확장했다. 그런 세종의 영토인식은 요도의 실체를 확인하려고 성심을 다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세종은 실체 확인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낮고 작은 요도가 바다와 하늘이 접하는 해중에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다.³⁴⁾ 것처럼 확인하기 어려운 요도는 실체를 확인한다 해도 큰 이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무릉도처럼 외적의 침구를 걱정할 섬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세종은 체념하는 일 없이 풍설의 요도를 확인하려 했다. 그리고도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요도가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다.

4. 정동해중의 통치

4.1. 세종의 쇄출 정책

고려는 울릉도에 파견하는 자에게 특별한 관직을 부여하지 않았다. 필요할 경우에는 명주도감사 등을 파견했다. 1273년의 허공이 원에 바칠 재목을 절취하는 절목사로 임명한 것이 특별한 관직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달랐다. 태종은

31) 襄陽府人金延奇嘗言.東距府海路百餘里之地,有蓼島.今更詳問延奇等,備悉以聞(『世宗實錄』 세종27년8월17일)

32) 樞孟孫啓.前司直南蒼與臣言,蓼島在三陟府海中,望見之.今若遣蒼,則庶或可得(『世宗實錄』 세종27년8월17일)

33) 入居者,放還鄉里,仍復其家.卿以此意,徧令曉諭(중략)蒼並海候望,竟未得而遷,蓼島之說妄矣.苟在海中,凡有目者所共見,何獨南蒼得見,而他人不能也.孟孫輕信南蒼之言,遽聞于上,其為欺罔一也.蒼竟不得,其為誕妄益明矣(세종27년8월17일)

34) 予謂此島,海中必有之,然島山平微,海浪連天,在岸者未得詳見(세종27년8월17일)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했었는데, 세종도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하여 정동해중을 관리하더니, 1438년에는 남회와 조민을 「무릉도순심경차관」에 제수하여 안무사의 역할을 대행시켰다.

태종과 세종은 안무사에게 무릉도 주민을 쇄출하게 했으나 완전한 쇄출이 이루어진 일은 없다. 태종이 1403년에 쇄출을 명했으나 1412년에 11호 60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1416년에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하여 다시 쇄출해야 했다. 그때 태종은 무릉도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이만을 동행시키며 먼저 두목을 설득하라는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만전을 기하려는 배려였다. 그런데도 순시하고 돌아온 김인우는 15호 86인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 서도 3인만 쇄출했다.³⁵⁾ 그러자 대신들 간에는 주민들에게 종자와 농기구를 보급하며 격려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태종은 쇄출을 주장하는 황희의 의견을 채택하고 김인우를 다시 파견했다.³⁶⁾

결과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쇄출된 17인을 구휼한 내용이 1419년(세종 원)조에 보이고, 1423년에 28명이 다시 무릉도로 귀환했다는 기록이 있어, 1417년에 대대적인 쇄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무릉도로 귀환했던 주민 7인이 1425년에 평해군에 나타났다 다시 체포되는 것을 보면,³⁷⁾ 무릉도 주민들이 육지로 쇄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인우가 이끌던 2척의 병선 중 1척이 일본으로 표류하자, 세종은 20인을 쇄출하려다 40여인이 표류했다고 한탄하며,³⁸⁾ 표류한 수군들의 초혼제를 지내도록 했다.³⁹⁾ 그렇게 희생이 따르는 데도 쇄환하려는 것은, 주민들이 거주하면 왜적이 그곳에 머물며 강원도 등지에 침범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⁴⁰⁾

35) 命出江陵道武陵島居民于陸地(『太宗實錄』태종3년8월11일). 其島內人戶十一,男女共六十餘,今移居本島(태종12년4월15일). 以麟雨為武陵等處安撫使,以萬為伴人,給兵船二隻,抄工二名,引海二名,火燭火藥及糧,往其島,諭其頭目人以來.賜麟雨及萬衣笠靴(태종16년9월2일). 且率居人三名以來,其島戶凡十五口,男女并八十六(태종17년2월5일)

36) 工曹判書黃喜獨不可曰.勿令安置,依速刷出.上曰,刷出之計是矣(중략)宜以金麟雨仍為安撫使,還入于山,武陵等處,率其居人出陸(중략)命江原道都觀察使,給兵船二隻,選揀道內水軍萬戶千戶中有能者,與麟雨同往(태종17년2월8일)

37) 江原道平海人(중략)曾逃居武陵島,歲丙申,國家遣麟雨盡行刷還.癸卯 癸卯,乙之等男婦共二十八名,復逃入本島,今年五月,乙之等七人留其妻子於本島,乘小船潛到平海郡 仇彌浦發覺,監司囚之,本郡馳報.於是復為刷還(세종7년8월8일)

38) 船軍四十六名所坐一艘,飄風不知去向.上謂諸卿曰,麟雨捕還二十餘人,而失四十餘人,何益哉(세종7년10월20일)

39) 茂陵入歸時,敗船物故江原道船軍,招魂致祭致賻.金麟雨云,漂向日本.上以謂敗船,故有是命(세종7년11월20일)

세종 원년조의 17인과 7년조의 28인을 1417년(태종 17)에 김인우가 쇄출한 무릉도 주민으로 본다면, 무릉도에 거주한다는 15호 86인에 이르지 못하여, 쇄출이 이루어진 후에도 거주하는 주민이 있었다는 것이 된다. 1412년에 강원도 관찰사가 어라진에 나타난 유산국도인 12명을 3개소에 분산 유치하고 처리 방법을 물었던 것을 보면, 세종 원년조의 17인도 1417년에 쇄출했던 도민의 일부로 볼 수 있다.⁴¹⁾ 따라서 1417년에 주민 전원을 쇄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무릉도에서 성장했다는 백가물 일행 12인이 1412년에 고성에 나왔다 체포되자, 본도에 11호 60여인이 거주한다고 진술한 것이나⁴²⁾ 1416년조의 방지용이 15가구를 거느리고 무릉도에 입거했다는 기록을 보면,⁴³⁾ 조정의 뜻을 어기며 무릉도에 입도하려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산국의 무릉도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다는 백가물 일행이 본도에 이주하여 거주한다는 진술은, 태종조의 정동해중에 사람이 거주하는 섬이 무릉도 이외에 존재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섬은 무릉도 뿐이다. 그것을 백가물 일행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무릉도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에 본도로 이주한 것으로 진술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정동해중의 지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일로, 의도된 진술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4.2. 울릉도와 무릉도

신라가 512년에 우산국을 정벌하고 울릉도 주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알 수 있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라 본토로 이주시켰는지 울릉도에 그대로 살게 했는지, 아니면 일부의 지도층을 신라가 지정하는 곳으로 이주를 시켰는지도 알 수 없다. 단지 고구려의 우진야현에 속한 것으로 보았던 우산국을 신라가 점령한 후에, 경덕왕대에 우진야군으로 개명했다는데, 고려가 다시 현으로 강등시켰다는 사실을 『고려사지리지』가 전한다.⁴⁴⁾

우릉도가 930년에 고려에 사자를 파견하여 벼슬을 제수 받은 상황도 분명하

40) 若此島多接人,則倭終必入寇,因此而侵於江原道矣(태종16년9월2일)

41) 慎鏞厦(1998) 『獨島嶺有權資料의 探求』 독도연구보전협회, p.51.

42) 流山國島人白加勿等十二名,求泊高城於羅津,言曰,予等生長武陵,其島內人戶十一,男女共六十余(태종12년4월15일)

43) 昔有方之用者率十五家入居,時或假倭為寇(태종16년9월2일)

44) 本高句麗于珍也,一云古弓伊郡,新羅景德王,改今名,為郡.高麗,降為縣,置令(『고려사』 지리지, 울진현)

지 않다.⁴⁵⁾ 누가 사자를 파견했는가 만이 아니라 고려가 그 인물을 어떻게 취급했는가도 전하지 않다. 다만 사신을 파견하는 8월의 이전인 2월에, 신라국왕이 왕건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만날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나, 신라 동해안의 110여성이 투항했다는 사실 정도를 알 수 있다. 것처럼 동해안의 세력들이 투항하는 시류 속에서 우릉도 사자가 고려의 벼슬을 제수 받았다는 것은, 우릉도가 그때까지 동해안의 주군 정도의 독자성을 보장받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고려사』는 울릉도를 우릉도(태조13, 의종11, 충목왕2년), 우산국(현종 9,10,13년), 우릉성(덕종원년), 울릉도(인종19년, 원종 즉위, 14년), 무릉도(신우 5)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⁴⁶⁾ 그렇게 다양하게 표기된 섬의 동방에 암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호칭하던 도명이 없을 수 없다. 『고려사』는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남겨두었는데 신우조의 「무릉도」와 「지리지」의 「一云于山武陵本二島」가 그것이다.

신라의 지증왕과 이사부가 울릉도와 우산국을 병칭했는데, 그것은 「일도」로 표기된 울릉도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명과 국명을 신라가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는 당시의 호칭이 울릉도와 우산국뿐이었을까인데,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3세기의 「일도」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호칭 중의 하나가 『삼국지위지』에 채택되었고, 이후에도 다양한 호칭이 유포되고 있었는데 『삼국사기』의 편찬에 임한 사관이 울릉도와 우산국을 채택한 것이다.

그것은 『삼국유사』가 울릉도도 우산국도 아닌 「우릉도」로 기록한 것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삼국유사』는 그것만이 아니다. 「于陵島가 있는데 지금은 羽陵으로 기록한다」라고 울릉도를 우릉도나 우릉으로 칭한다는 사실까지 전하고 있다. 그것은 『고려사지리지』의 「일운」과 같은 것으로, 울릉도가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표기가 다양했다는 것은 호칭도 다양했다는 것이다.

3세기의 일도가 6세기에 울릉도와 우산국으로 표기되더니, 고려시대에 우산국 울릉도·우릉도·우릉성 등으로 불렸다는 것은 도명이 다양하게 호칭되고 표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무릉도라는 표기가 신우조에 등장한다.

45) 苒陵島遣白吉·土豆, 貢方物, 拜白吉為正位, 土豆為正朝(『고려사』 태조13년8월, 丙午)

46) 苒陵島遣白吉土豆(太祖13년), 以于山國(顯宗9년), 于山國民戶(顯宗10년), 于山國民(顯宗13년), 羽陵城主(德宗元年), 入島蔚陵島(仁宗19년), 東海中有羽陵島(毅宗11년), 將適蔚陵(元宗即位年), 為蔚陵島斫木使(元宗14년), 苒陵島人(忠穆王2년), 倭入武陵島留半月而去(『高麗史』 列伝辛禩5년7월)

물론 울릉이나 우릉·무릉 등이 「우르피」의 한자 표기라 하지만⁴⁷⁾ 울릉도를 무릉도로 표기한 것은 그곳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암도에 대한 호칭과 표기가 관용적으로 병행되는 경우를 상정시킨다.

『고려사』에는 「열진」 신우조의 「倭入武陵島」와 「지리지」의 「一云于山武陵」이라는 표기가 전부이지만 왕조가 바뀐 이후의 『태종실록』에는 「무릉등처」나 「우산무릉」 등처럼 무릉도와 우산도가 병기되고, 『세종실록』도 「우산무릉등처」·「무릉도우산」·「우산무릉」처럼 울릉도의 병칭인 무릉(도)를 우산(도)와 병기한다. 그것은 「무릉우산」이나 「우산무릉」이라는 호칭과 표기가 관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우조의 무릉도를 근거로 무릉도와 쌍을 이루는 우산도가 호칭되고 표기되는 경우는 상정 가능한 일이다.

조선의 태종이 1416년에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에 제수하며 무릉도의 주민들을 쇄출을 명했고 김인우는 1417년에 정동해중을 순찰하고 돌아와 우산도에서 돌아온 것으로 보고하여, 무릉등처를 우산과 무릉으로 구체화하여 우산(도)와 무릉(도)가 병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세종이 같은 김인우를 안무사에 제수하며 「무릉등처」가 아닌 「우산무릉등처」라고 안무사의 활동범위를 「우산무릉」으로 구체화한 「우산무릉등처안무사」에 제수했다.⁴⁸⁾ 그것은 태종에 의해서 구체화된 정동해중의 지리적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고, 정동해중에 무릉도와 우산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이었다. 6세기의 신라인들이 병칭했다는 울릉도와 우산국은 「도」와 「국」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우산국이 울릉도를 포함하는 나라였다는 것으로, 우산국은 울릉도와 그 동방에 존재하는 암도를 영토로 하는 국가였다는 것이다. 다만 주민들이 울릉도에만 거주했기 때문에 울릉도가 우산국을 대표하거나 동격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4.3. 안무사와 경차관

정동해중의 통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많지 않다. 『삼국지위지』가 전하는 「일도」는 옥저인들이 표착하거나 「일도」 주민들이 건너오는 섬이었다.⁴⁹⁾

47) 慎鏞厦(2003) 「독도 명칭 변화 연구」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한양대학교출판회, p.49.

48) 以前判長鬻泉事金麟雨爲于山,武陵等處按撫使(세종7년8월8일)

49) 耆老言國人嘗乘船浦魚,遭風見吹數十日,東得一島,上有人,言語不相曉(金聲九(1996) 『中國正史朝鮮列國傳』, 『三國志』, 東文選, p.100.)

지증왕은 실직주를 두고 이사부를 군주로 삼았는데, 군주는 최고의 외관으로 예하의 군(태수) 현(령)을 통제하지만 자체의 부관을 거느리는 특수한 관직이었다.⁵⁰⁾ 이사부가 우산국 정벌에 동원한 병선에 건 깃발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우산국의 정벌을 총괄한다는 관직명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고려는 울릉도에 파견하는 관리에게는 특별한 관직을 제수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인종은 1141년에 명주도감창사 이양실이 사람을 파견하여 울릉도 산물을 채취했고, 의종도 1157년에 명주도감창전중급사 김유립을 파견했다. 최이가 1243년에 파견했다는 관리는 신분도 전하지 않아, 원종이 1259년에 첨서추밀원 허공을 「울릉도작목사」로 제수한 것이,⁵¹⁾ 울릉도 도해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관직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조선의 태종은 김인우를 1416년에 「무릉등처안무사」에 제수하여 정동해중에 에 무릉도 이외에 존재하는 섬이 우산도라고 보고하려, 우산도와 무릉도가 병기되게 했다. 그것을 활용한 것이 세종이었다, 세종은 1425년에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에 제수하여, 태종이 「무릉등처」를 「우산무릉」으로 구체화시킨 왕조의 인식을 활용했다.

그처럼 정동해중의 지리적 사실에 관심이 많은 세종이 요도가 존재한다는 풍설에 접하자 실체를 확인하려고 9년이나 노력하고도 뜻을 이루지 못하자 1438년에 신설한 「무릉도순심경차관」에 남회와 조민을 재수한다. 그리고 무릉도 주민의 쇄출을 명하자 1438년 7월에 무릉도 주민 66명을 쇄출하고, 채취한 산물을 바치며 순심한 경과를 보고하는 것을 보면,⁵²⁾ 1425년에 「우산무릉등처안무사」 김인우가 무릉도의 주민 20인을 쇄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활동이었다. 그런데도 관직에서 「우산」을 삭제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세종이 「무릉도순심경차관」을 신설한 1438년은 요도의 풍설을 듣고 9년이 되는 해이고, 요도가 강원도와 함길도의 정동해중에 존재한다는 정보를 함길도 감사에게 제공하며 자세한 것을 확인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보고 받기 시

50) 申滢植(1993) 『신라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151.) 강봉룡 「이사부 생애와 활동의 역사적 의의」에 인용된 이명식(2009) 「신라 중고기의 장수 이사부고」(강원도민일보 「고대해양활동과 異斯夫 그리고 사자 이야기」 p.15.)

51) 溟州道監倉使李陽美遣人入蔚陵島,取菓核木葉異常者,以獻(『高麗史』世家,仁宗19년7월)…王聞東海中,有羽陵島,地土肥,旧有州,可以居民,遣溟州道監倉殿中內給事金柔立往視(毅宗11년5월)…東海中有島,名蔚陵,地膏沃,多珍木海錯,以水程遠,絕往來者久.怡遣人視之(列伝42,崔忠獻傳 崔怡)…以簽書樞密院事許珙為蔚陵島斫木使,伴李樞以行(元宗14년2월)

52) 以前護軍南蒼,前副司直曹敏為茂陵島巡審敬差官.二人,居江原道海邊者.時國家聞茂陵島在海中多產異物,土沃可居,欲遣人尋訪(『세종실록』 세종20년4월21일) 茂陵島復命,進所捕男婦共六十六及產出沙鉄石鍾乳生鮑大竹等物(세종20년 7월15일)

작하여 8년이 지난 해였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1438년 7월에 세종은 강원도 감사에게

4a. 본도가 양양 동쪽에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어느 곳에 있다는 사실은 불가불 알아야 할 것이다. 경은 다시 방문하고 계달하라.⁵³⁾

양양 동쪽에 있다는 요도를 확인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다. 양양 동쪽이라면 무릉도에 가는 항로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요도였다. 그런데 그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태종이 1416년 8월에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에 제수하자 5개월이 지난 1417년 2월에 「등처」에 우산도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산」을 생략하여, 활동영역을 무릉도로 한정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무릉도순심경차관」을 신설하고 무릉도 주민의 쇄환을 명하는 것은, 무릉도 순심에 전념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도 볼 수 있는 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요도의 실체를 확인하는 일에 전념시킨다는 의지에서 「우산무릉등처안무사」에서 「우산을 삭제하고, 안무사를 경차관으로 대체한 「무릉도순심경차관」을 신설한 것이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풍설의 요도를 확인한다면 16년이나 성의를 다한 세종이 「무릉등처안무사」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라고 우산을 첨기했던 관직에서 「우산」을 삭제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5. 결론

세종은 『고려사』의 편찬은 물론 태조 정종태종실록의 편찬에도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정도로 역사 인식이 깊었고 그런 인식에 근거해서 왕조의 정통성을 강화하려 했다. 그런 세종이었기에 『고려사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가 전하는 우산도와 무릉도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태종이 「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했던 김인우를 다시 안무사에 제수하면서 「우산」을 첨가하여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개명한 것도 정동해중의 지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안무사의 활동이 무릉도 중심이어서 세종이 우산국을 인식하지 못했

53) 但本島,諺稱在襄陽之東,不可不知其在何處也,卿宜更加訪問以達(세종20년7월26일)

다거나 「우산무릉」과 무릉도를 동격으로 보는 의견도 있으나 그것은 「등처」의 의미를 간과한 의견이다. 「무릉등처」의 「등처」가 무릉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역, 무릉도 외에 또 다른 도서를 포함하는 표기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태종이 안무사로 제수한 김인우가 정동해중에 무릉도와 우산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보고하자, 태종이 그것을 인정했고, 세종이 그런 인식을 관직명에 활용한 것을 계기로 사회인식으로 고착된다. 따라서 「우산무릉등처안무사」가 관리하는 영역은 무릉도와 우산도를 둘러싼 해역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런 데도 기록된 안무사의 활동 내용이 무릉도 중심인 것은 주민이 거주하는 무릉도에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함길도의 정동해중에는 울릉도와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암도 이외에 따로 존재하는 섬이 없다. 그것은 울릉도에 사람이 살면서부터 인식되고 유포된 정보였다. 『삼국지』는 그 암도를 「일도」에 포함시켜 인식했고, 512년의 울릉도 주민과 신라인들은 우산국에 포함시켰는데, 고려가 남긴 사료에 근거해서 편찬한 『고려사열전』은 울릉도를 무릉도로 대체한 신우조의 표기로 우산도가 병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고, 『고려사지리지』는 「일운」으로 해서 정동해중에 우산도와 무릉도로 불리는 양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고려사』에서는 「열전」 신우조와 「지리지」의 「일운」으로 소개되는 무릉도이지만 조선조가 되면 무릉도가 주를 이룬다. 정동해중에 양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표기되는 것은 태종 17년조가 처음이다.

그런 상황에서 무릉도와 우산도 외에 요도의 풍설이 유포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풍설은 들은 세종은 1429년에 실체의 확인에 나서, 강원도의 북방, 함길도의 남방 해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풍설을 접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요도의 실체를 확인한 셈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세종은 1438년 7월에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다시 탐문할 것을 지시했다.

그 지시가 있기 3개월 전에 세종은 신설한 「무릉도순심경차관」에 조민과 남회를 제수하여 무릉도를 관리시켰다. 안무사에게 관리시켰던 해역 「우산무릉등처」에서 「우산」을 삭제한 것은 무릉도로 향하는 항로에 존재한다는 요도를 확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실존하지 않아 실체를 확인하는 일이라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세종은 강역 안의 땅을 찾는 것이 천하의 상사이고 왕자의 도리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런 세종이 존재가 확실한 우산도를 통치 영역에서 제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무릉도순심경차관」을 신설하면서 「우산」을 삭제한 것은 관리 영역에서 우산도를 제외하는 일이 아니라 무릉도 부근에 존재한다는 요도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일에 전념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조치로 보아야 하는 일이었다.

풍설의 요도는 삼척에서 100여리 떨어진 해중에 존재하는 봉우리가 셋인 섬이었는데,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숙종실록』이 설명하는 울릉도와 흡사하다. 따라서 무릉도가 요도로 풍설 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것은 무릉도 주민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일이다.

태종이 1403년에 무릉도 주민의 쇄출을 명한 이래 수차례의 쇄출이 있었으나 쇄출이 완전히 이루어진 일은 없다. 쇄출된 주민들이 다시 귀환하기 때문이다. 것처럼 쇄출된 주민들이 다시 귀환하려 했다는 것은 주민들이 무릉도 거주를 선호했다는 것이다. 그런 주민들은 정동해중의 지리가 사실대로 알려지는 것은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사실대로 알려지는 것은 쇄출에 협조하는 일이고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리적 사실을 왜곡해야 하는 필요가 있었다. 파견된 관리라 해도 주민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왜곡하여 제공하거나 유포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요도의 풍설은 무릉도 주민들의 의도에 따라 유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서인원(2002) 『朝鮮初期 地理志 研究』 혜안, p.45
 신용하(1998) 『獨島領有權資料의 探求』 독도연구보전협회, p.5
 신용하(2003) 「독도 명칭 변화 연구」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한양대학교출판회, p.49
 최남선(1973) 『鬱陵島와 獨島』 『六堂崔南善全集2』 玄岩社, p.680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的 研究』 古今書院, p.99-104
 田代和生(2002) 『倭館』 文芸春秋, p.11

논문 투고 일자 : 2018. 06. 19.
논문 심사 일자 : 2018. 07. 31.
게재 확정 일자 : 2018. 08. 03.

 < 要旨 >

 『世宗実録』の 于山武陵
 - 風説の蓼島 -

権五曄・権赫晟

世宗は『高麗史』だけではなく先代の実録を改修し、編纂することを主導した。そのみでなく『新撰八道地理志』も編纂して、正東海中に于山島と武陵島が存在するということをも確認した。そのような世宗にとって、二島以外に蓼島が存在するという風説は普通のことではなかった。そのため16年間もその実体を確認しようとしたが、目的を達成できなかった。実際に蓼島が存在しなかったのが当然の結果であった。

蓼島の実体を確認しようとした努力は実れないまま終わったが、正東海中に于山島と茂陵島という二つの島が存在するということをはっきり確認されたわけだ。従って、『世宗実録』ばかりではなく朝鮮の記録が伝える正東海中の記録は朝鮮王朝が二島の存在を認識していたという事実を根拠にして解釈するべきだと考える。改めて言えば「于山武陵」を二島でなく一島に解釈したり、初期の朝鮮が于山島の存在を知らなかったと言うような主張は成り立た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WusanMureu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
 -Yodo of rumors-

Kwon, O-Yub · Kwon, Hyuk-Sung

King sejong led it, while participating in the world sect repairing and editing late antique records, including the "History of Goryo." King sejong also edited "Geography - the eight provinces of Korea" and confirmed that Wusando island and Mureungdo island existed in original eastern sea. For the world sect, the rumor of the existence of Yodo island, in addition to these two islands, was unusual. I worked to confirm the substance of this rumor for 16 years but was unable to do so; this was, in fact, an accurate result, since Yodo island did not exist.

King Sejong ended the fruitless effort to identify Yodo island, but it was clearly confirmed that two islands called Wusando and Mureungdo existed in the original eastern sea. Therefore, the Korean dynasty is grounded on the recognized existence of two islands and should interpret the records of the original eastern sea based on both the Korean record and the "Geography of King Sejong." I first interpret the "WusanMureung islands" as one island, not two, and then propose that the claim that early Korea did not know about the existence of Wusando island is inconsistent.